

28. 삶은 현실이다(11.29)

제목 1: 아내의 아쉬움

아내는 여행이 종반에 들어서자 안 갈 것 같던 날짜가 벌써 지나갔다고 자주 말한다. 벌써 5분의 3이 지나갔네 그런다. 왜 아쉬움이 있어? 하고 물어보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 해야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하고 얼버무린다.

속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다. 평생 집안 일 도맡아 해오다 한 달 동안 놀면서 여행하니 얼마나 편한가? 거기에 개인 전용 통역사 겸 비서 그리고 여행가이드를 데리고 다녔으니 아쉽기도 할 것이다.

돌아가는 길의 마드리드에서는 표현이 점점 구체적이다. 돌아가면 바로 김장해야 하고.. 베란다 장독대 청소도 해야 하고.. 김치 냉장고에 살 어름도 제거해야 하고..

아내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오고 있다. 나도 마음이 애잔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? 삶은 현실인데 ...

아 또 여행가면 되지.. 내 칠순도 곧 있고.. 당신 칠순도 있고.. 그냥 또 한달씩 일 저지르자. 아내는 그 때는 지금 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텐데 힘이 있을까? 사실상 긴 여행은 이번이 끝이지 뭐.. 하고 말한다. 하여튼 상황 파악은 빠르다.



제목 2: 영성한 바라하스 공항

바라하스 공항 공식명칭은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공항-바라하스 이다. 1975년 프랑코 총통이 민정 이양 한 후 초대 수상이었던 아돌포 수에레스 이름을 딴

것 이다. 그는 스페인 민주화에 헌신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. 바라하스는 지명이다. 마드리드 시에 속해 있다.

외국항공사는 바라하스 공항 1 터미널에서 탑승한다. 지난 번 마드리드에서 마요르카 갈 때는 4 터미널을 이용했다. 4 터미널은 이베리아 항공만 이용한다.

그런데 1 터미널이 4 터미널보다 많이 노후화 되었다. 도착 및 출국장 서비스가 부족하다. 탑승 수속과 검색 등 출국 절차 모두 어지럽다. 이민국을 통과한 후 탑승구가 있는 A구역까지 찾아가는 길은 조금 과장하면 길도 멀고 미로 이다.

우리 나라 인천공항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과 우리 나라 사람들 일 처리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 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온다.

제목 3: 인천 2공항 도착, 현실로 돌아오다.

특별할 것도 없는 12시간 비행이다. 식사 시간이 되었다.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비빔밥을 선택해서 먹었다. 별 수 없는 한국인이다. 나는 소고기 스투를 선택해 먹고 잠이 들었다. 잘 자고 나니 3 시간 남았다. 비행기에서 이렇게 잘 자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나도 모르게 피곤했던 것 같다.

인천 부근의 섬이 보이기 시작한다. 비행기가 착륙한다. 우리 나라 기장 들의 비행기 착륙 기술은 세계 최고인 것 같다. 항상 느끼고 있다. 착지를 아주 부드럽게 한다.



공항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여행은 끝나고 다시 삶 속으로 돌아왔다. 삶은 현실이고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.



제목 4: 아내와 어묵 탕

출국장을 나온 후 분당 행 버스표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2 공항 시스템이 1 공항과 다르다. 무인 판매대만 보인다. 아내에게 짐을 맡기고 매표를 마친 뒤 뒤를 돌아보니 안보인다. 찾아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묵탕을 사서 먹고 있다.

그 어수선한 시간에도 아내의 눈에 어묵탕을 파는 판매대가 포착된 모양이다. 내가 이 와중에도..하며 불만스러운 눈짓을 보냈다. 아내가 머쓱했다. 어묵탕을 보니 순간적으로 먹고 싶더라고.. 한다. 한식이 빨리 먹고 싶은 것이다.

아내는 특히 어묵을 유난하게 좋아한다.

제목 5: 떠났던 집으로 27일 만에 돌아오다

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. 크게 산 것이 없으니 가져간 짐 다시 가져온 셈이다. 잘 먹고 잘 자고 잘 돌아다니다 왔다.

계산해 보니 왕복 3일 빼고 24일 동안 34만 보를 걸었다. 하루 평균 14,000보 걸은 셈이다. 24,000보 걸은 날도 있었다. 자유여행이라 걷는 것이 일이다. 또 걸어 다녀야 숨겨진 도시풍경들을 볼 수 있다.

아내는 내일부터 살을 빼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. 많이 걸어 다녔으니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결심이 대단하다. 두고 볼 일이다.

집안은 어려움이 없었다. 다행이다. 우리도 건강하게 돌아왔다. 다시 내일부터는 현실을 직시하며 잘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.